



+ 이장섭 · 방송과기술 기자

# MBC GAME HERO CENTER

'MBC 게임 히어로 센터'는 2008년 4월 28일 코엑스를 떠나 MBC 게임과 한빛 스타츠의 프로리그 경기를 시작으로 문래동 시대를 열었다. e스포츠 리그 경기장으로 활용되는 히어로 센터는 문래동 멀티플렉스 쇼핑몰 '룩스(LOOX)' 3층에 자리 잡으며, 스튜디오 시설과 히어로 선수단의 연습실이 함께 포함하고 있다. MBC 게임의 대부분은 여기 히어로 센터에서 방송으로 제작된다.

히어로 센터는 큰 경기를 치루는 경기장으로 투명 아크릴로 선수들을 보호하고 게임 룰에도 있듯이 경기장 밖의 소음을 제거하기 위해 선수마다 이어폰을 착용하게 하고 있다. 또한, 선수들이 한참 예민한 10대 들이다보니 심리적인 보호를 위해 스튜디오 뒤편으로 각 팀별로 선수 대기실을 마련하고 있다.

히어로 팀은 2006년 2월에 창단하여 하태기 감독을 필두로 서경중, 박지호, 박성준 등의 스타급 플레이어를 보유하며 힘찬 도약을 해나갔다. 그런 히어로팀은 그해 스카이 프로리그 2006 후기리그 결승전에서 '전통의 강호 CJ 엔투스'를 제압하고 첫 우승을 차지했다. 히어로의 창단해 첫 우승은 e스포츠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더욱 뜨거워지는 경쟁시대를 불러 일으키는 원동력이 됐다.

현재 히어로는 김혁섭 감독을 필두로 이운재, 도진광 코치가 사령탑을 맡고 있으며, 스타급 플레이어로는 테란의 염보성·이재호 선수, 프로토스의 박지호·김재훈 선수, 저그의 서경중·김동현 선수 등이 있다. 현재 21명의 선수가 선수단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으며, 이들은 매일 다양한 맵에서 여러 가지 전략 연구와 끝없는 연습으로 뜨거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히어로 센터의 방송 과정을 살펴보면, 스타크래프트 리그인 프로리그는 IPX를 기반으로 스캔 컨버터를 사용한다. 방송은 프로 게임단의 대결로 5판 중 먼저 3승을 하는 팀이 승리를 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제작된다. 무대에 놓여 있는 2개의 캡슐에 두 명의 선수가 들어가 경기를 하는데, 게임연출인 읍저버가 전체 게임을 관장한다.

카메라는 총 7대가 운용되며 카메라 1, 3은 선수를 주로 픽업하고, 카메라 4는 관중 스케치를 보여준다. 카메라 2와 지미집 카메라는 풀샷 위주의 화면을 보여주고, 6번 카메라는 무대 위에 위치하여 지미집이 픽업 못하는 화면을 제공한다. 7번 카메라는 크로마 부스에서 캐스터와 해설자의 게임중계를 보여준다.

조명은 크게 선수 인물조명과 무대배경조명, 객석조명, 크로마 조명으로 나눈다. 게임채널의 경우, 조명설계를 할 때 선수의 머리위로 색조명이나 백라이트가 들어가면 대전하는 게임 모니터에 빛이 새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선수가 원만한 경기를 치루지 못해 시합을 망칠수도 있으므로 조명디자인에 세심함을 기울이고 있다.



# MBC GAME HERO · INTERVIEW



## 승리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



### 염보성

아이디 : Sea[Shield]

종족 : 테란

생년월일 : 1990년 3월 29일

종족을 선택한 이유 : 테란이 멋있어서

좌우명 :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자

기억에 남는 경기 : 온게임 스타리그 첫경기 vs 이병민

어떤 프로게이머로 남고싶나요? : 나만의 스타일을 갖고 있는 게이머

팬들에게 한마디 : 열심히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팬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SeaShield>

염보성 선수는 'MBC 게임 히어로' 소속으로 주종은 테란이며, Sea[Shield]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다. 올해 20살로 다른 선수들에 비해 어린 나이지만 2004년부터 프로게이머 활동을 시작했으며, 2005년 상반기 드래프트에서 MBC 게임 히어로의 2차 지명으로 입단했다. 나이답지 않게 카리스마가 강한 선수로 그의 얼굴에서는 프로의 강한 모습이 풍겨져 나온다.

프로입단 이후 프로리그에서는 엄청난 성적을 거두고 있어서 누리꾼들은 염보성에게 '프로리그의 사나이'란 별명을 붙였다. 하지만, 개인 리그에서는 아직까지 과제들이 남아 있어 고민도 많다. 그렇다고 멈추기엔 그의 열정이 너무도 뜨겁다.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자"라는 좌우명처럼 멋진 미래를 향해 묵묵히 키보드에 손을 올린다.

20살 프로게이머 염보성 선수, 그의 2009년도 포부를 들어보자.

### 2009년을 준비하는 마음가짐

20살이 된다는 것이 기쁜 마음과 책임감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것 같아요. 어릴 적에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좋았는데, 그 좋아하는 것으로 다른 친구들보다 어린 나이에 프로에 입문하여 경제 활동을 하면서 책임감이 강해지더라고요. 책임감을 바탕으로 강하고 큰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어디다는 이미지를 벗고 더욱 성장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2009년을 준비하고 싶어요.

### 하루 연습량

프로게이머 지망생들에게 "남들보다 4.5배 더 열심히 하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요.

기본적으로 팀 스케줄에 맞춰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전 훈련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마치고 1시 30분부터 6시까지 맵 분석, 각종 전략, 유닛 컨트롤 등 끝없는 연습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저녁식사를 하고나서는 자율적인 연습시간으로 들어가는데 시험에서 이기려는 마음으로 늦은 시간까지 하게 돼요.

다른 선수들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컨디션 조절을 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열심히 보강해요.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우승을 향हे기는 길이기도 하고요.

### 선수생활을 하면서 생긴 버릇

처음에는 뭐라 말할 만한 버릇은 없었어요. 그런데, 프로게이머이고 승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패배를 경험하면서 긴장도 하고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긴장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손바닥에 자연스럽게 땀이 차더라고요. 땀이 차면 키보드나



마우스를 컨트롤할 때 미끄러질 수 있어서 경기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 후로는 손바닥에 조금의 물기나 땀이 있으면 손수건으로 자꾸 닦아내는 버릇이 생겼어요.

### 미래에 대한 상념들(대학, 군대, 진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이 모두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 나이에 프로생활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보다 많은 것을 얻었어요.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기엔 남들과 조금은 다른 길이지만 열심히 한다면 저의 길은 항상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프로게이머를 특채로 학생을 뽑는 대학이 없어서 사이버 대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군대는 많은 선배들이 공군에 입대해서 선수생활을 하면서 군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군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의 특기를 살리면서 군복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먼 앞날에 대한 생각은 조금 미룰래요. 리그 우승, 개인 우승, 학교, 군대 등 향후 5년까지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미래를 향한 자신 있는 저의 발걸음이 계속되기 위해 오늘도 뛰어야죠.

### 마음을 컨트롤하는 방법

예전에는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선수들의 심리 상담을 해주시는 선생님을 찾아가요. 누군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풀어간다는 것이 예전에는 좀 어색했는데 요즘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컨디션이 좋고 경기를 잘 하던 때를 떠올려요. 그 기쁨의 순간을 위해 힘을 내죠.

###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취미생활

존경하는 인물이 지네던지던일 만큼 축구를 좋아해요. 축구는 직접 맘을 흘리며 하는 것도 좋아하고 게임인 위니도 상당히 좋아해요. 가끔 팀원들과 편을 나누어 축구시합도 해요. 신나게 한바탕 뛰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져요.

### 기억에 남는 팬들의 선물

먹을 것을 많이 주시는데 팀원들과 맛있게 나누어 먹어요. 그런데 기억에 남는 것은 양말이에요. 선수단에서 단체생활을 하다보면 양말이 섞이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어느 날 받은 선물을 풀었는데 제 얼굴이 캐릭터로 그려진 양말이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유명 연예인도 아닌데 자기 모습이 담겨져 있는 양말이라니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제 양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지요.

### 부모님의 파이팅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저의 열성적인 팬이시죠. 제가 워낙에 어린 나이에 선수생활을 하다 보니 부모님들이 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스타크래프트의 종족, 종족의 특징, 주요 맵 등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코치세요. "저그의 초반 공격에 주의하고, 같은 종족끼리는 기선제압이 중요하다"며 스타크래프트를 잘 이해하고 계세요.

### 앞으로의 목표

역시 프로선수라면 개인리그 우승인 것 같아요. 우승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나도 우승의 본좌에 올라가겠다는 생각이 가슴을 벅차게 해요.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로 우승을 향해 계속 도전하는 강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